

고흥군민, 여러분! 환영!

군민과 함께, 변화하는 고흥! 고흥군의회의 소식

제29호 | 제333회 ~ 제337회
GOHEUNG GUN COUNCIL NEWS



2025.09.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

CONTENTS



04

인사말

06

선거구별 의원 현황

08

회의운영 및 의안처리 현황

09

회기별 처리안건



고흥 거금대교

12

의원 발의 조례

14

상임위원회 활동

20

특별위원회 활동

24

주요 의정활동

- 행정사무감사
- 의원연구단체
- 5분 자유발언
- 건의문 · 성명서

42

청소년 모의의회

46

의회 청렴 실천

48

의정포토

56

의정소식

63

도움되는 정보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의장 류제동입니다.

평소 고흥군의회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29호 고흥군의회 의회소식지』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지는 2025년 상반기 동안 고흥군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군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333회부터 제337회까지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논의된 회기별 안건과 의안처리 현황, 의원 발의 조례 등 입법활동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도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 현장 중심의 주요 의정활동을 포함하여 고흥군의회가 실천해온 다양한 행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미래세대의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내용과, 의정활동 현장을 생생히 담은 ‘의정포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도된 의정 관련 기사들을 통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한 우리 의회의 자율적 실천 노력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소식지가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이해하고 신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의회 의장 류제동

선거구별 의원 현황

가 선거구 (고흥, 점암, 영남, 두원)



류 제 동 의원



한 승 욱 의원



박 경 석 의원

다 선거구 (도양, 풍양, 도덕, 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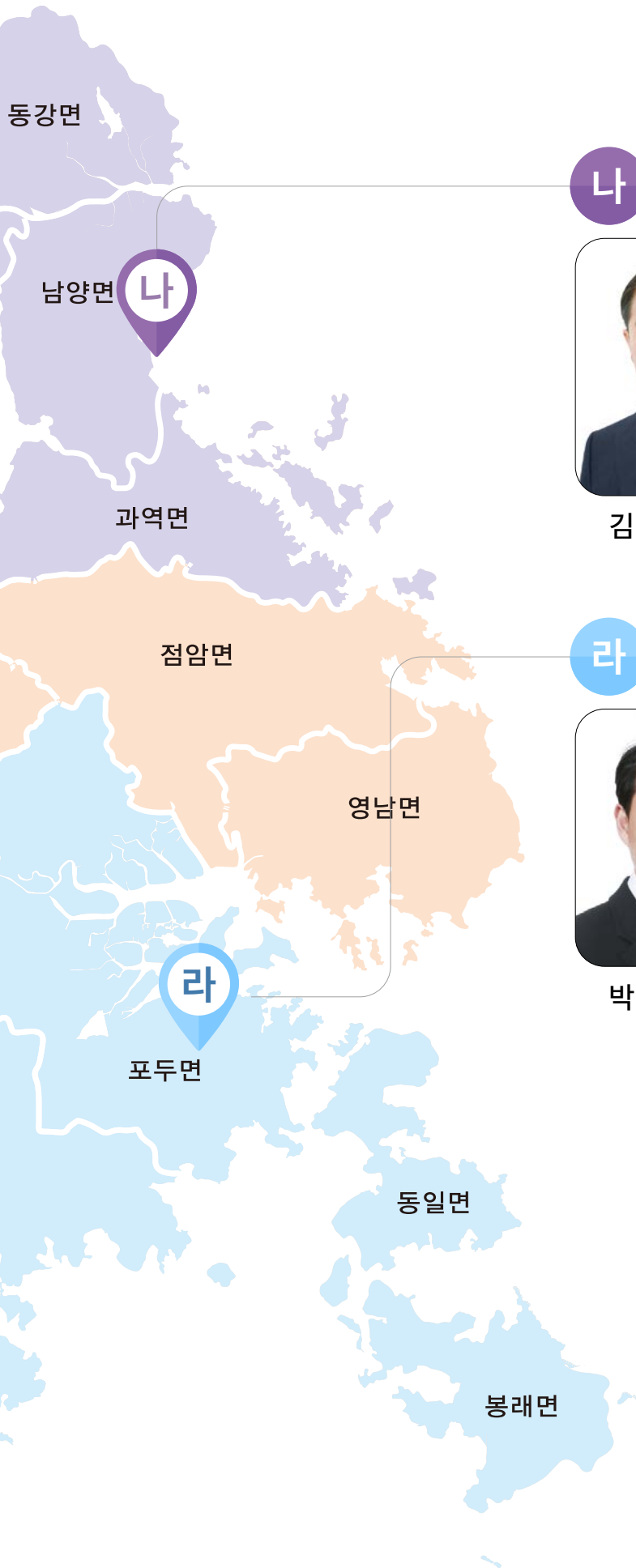
김 준 곤 의원



이 재 학 의원



조 영 길 의원



나 선거구 (과역, 남양, 동강, 대서)



김민열 의원



김재열 의원

라 선거구 (도화, 포두, 봉래, 통일)



박규대 의원



고건 의원

비례대표



전명숙 의원



김미경 의원

회의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

☉ 회의운영 현황 (2025. 1. 1. ~ 2025. 6. 30.)

연 도	구 분	기 간	일 수	비 고
2025	제333회 임시회	2025. 2. 17. ~ 2. 26.	10	
	제334회 임시회	2025. 3. 18. ~ 3. 20.	3	
	제335회 임시회	2025. 4. 14. ~ 4. 22.	9	
	제336회 임시회	2025. 5. 13. ~ 5. 15.	3	
	제337회 제1차 정례회	2025. 6. 2. ~ 6. 20.	19	

☉ 의안처리 현황 (2025. 1. 1. ~ 2025. 6. 30.)

회기	계	조례 및 규칙안	예산결산안	계획안	동의 및 승인안	기 타
합계	66	43	3	3	7	10
제333회	14	9	1	-	3	1
제334회	10	5	-	1	-	4
제335회	14	8	1	2	2	1
제336회	18	16	-	-	1	1
제337회	10	5	1	-	1	3



회기별 처리안건

제333회 임시회

(2025. 2. 17. ~ 2. 26.)

-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원안가결
-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334회 임시회

(2025. 3. 18. ~ 3. 20.)

- ▶ 고흥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원안가결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335회 임시회

(2025. 4. 14. ~ 4. 22.)

-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 2025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36회 임시회

(2025. 5. 13. ~ 5. 15.)

-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 원안가결
- ▶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고흥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실내 드론체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337회 제1차 정례회

(2025. 6. 2. ~ 6. 20.)

-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의회와 노원구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 원안가결
- ▶ 2024 회계연도 결산 원안가결
- ▶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의원 발의 조례

김준곤 의원
(제333회 임시회)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어항의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박규대 의원
(제334회 임시회)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향교·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에 관한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전명숙 의원
(제334회 임시회)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이유

- 현수막은 대다수가 환경에 부담을 주는 비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되고 있어 폐기 후에도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김준곤 의원
(제336회 임시회)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이유

-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자금 운용계획 수립, 평가지수 개발, 군의회 보고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자문 등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미경 의원
(제336회 임시회)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활동이 정책 입안과 공공외교활동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조영길 의원
(제337회 제1차 정례회)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2.12월)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을 통한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청렴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하고자 함

김준곤 의원
(제337회 제1차 정례회)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교육의 횟수 및 시간, 내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길)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소속위원



위원장 조 영 길



부위원장 고 건



위원 한 승 욱



위원 이 재 학



위원 김 미 경

의안심사

회 기	기 간	일 수	안 건				
			계	조례·규칙	계 획	동의·승인	기타일반
계		44	4	2	-	1	1
333회	2025. 2. 17. ~ 2. 26.	10	1	-	-	-	1
334회	2025. 3. 18. ~ 3. 20.	3	-	-	-	-	-
335회	2025. 4. 14. ~ 4. 22.	9	-	-	-	-	-
336회	2025. 5. 13. ~ 5. 15.	3	1	1	-	-	-
337회	2025. 6. 2. ~ 6. 20.	19	2	1	-	1	-

소관 업무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관련된 소관 업무와 정책을 다루고 있다.

소속위원



위원장 김 미 경



부위원장 고 건



위원 김 민 열



위원 김 재 열



위원 조 영 길

의안심사

회기	기간	일수	안건				
			계	조례·규칙	계획	동의·승인	기타일반
계		44	33	25	2	4	2
333회	2025. 2. 17. ~ 2. 26.	10	6	3	-	3	-
334회	2025. 3. 18. ~ 3. 20.	3	4	3	1	-	-
335회	2025. 4. 14. ~ 4. 22.	9	9	7	1	-	1
336회	2025. 5. 13. ~ 5. 15.	3	10	9	-	1	-
337회	2025. 6. 2. ~ 6. 20.	19	4	3	-	-	1

소관 실단과소

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분청문화박물관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승욱)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관련된 소관 업무와 정책을 다루고 있다.

소속위원



위원장 한 승 욱



부위원장 박 규 대



위원 박 경 석



위원 김 준 곤



위원 이 재 학



위원 전 명 숙

의안심사

회기	기간	일수	안건				
			계	조례·규칙	계획	동의·승인	기타일반
계		44	18	16	-	1	1
333회	2025. 2. 17. ~ 2. 26.	10	6	6	-	-	-
334회	2025. 3. 18. ~ 3. 20.	3	2	2	-	-	-
335회	2025. 4. 14. ~ 4. 22.	9	2	1	-	1	-
336회	2025. 5. 13. ~ 5. 15.	3	6	6	-	-	-
337회	2025. 6. 2. ~ 6. 20.	19	2	1	-	-	1

소관 실단과소

관광정책실, 우주항공추진단, 경제산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축산정책과, 환경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팜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 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위원



위원장 **고 건**



부위원장 **김 민 열**



위원 **한 승 욱**



위원 **박 경 석**



위원 **이 재 학**



위원 **조 영 길**



위원 **김 미 경**

의안심사

제333회 임시회

-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335회 임시회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부기명 변경)
- ▶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통계목 변경)

제337회 제 1차 정례회

- ▶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소관 업무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심사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고건)는 해창만지구 간척사업 완료 후 임대농지 및 보상토지(어업권 등)에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소속위원



위원장 **고 건**



부위원장 **박 경 석**



위원 **한 승 욱**



위원 **박 규 대**



위원 **전 명 숙**



위원 **김 미 경**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구성

-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5. 8. 31.(일) 까지

보고회 개최 / 24. 9. 27. (금), 고흥군의회 소회의실

- ▶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매각 추진 경과 및 현황 보고(재난안전과)
- ▶ 해창만 간척지 보상토지 현황 보고(재난안전과)
- ▶ 해창만 간척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 현황 보고(농업정책과)

해창만 간척지 농민단체 대표 등 간담회 개최/ 24. 11. 6. (수), 포두면사무소

- ▶ 특별위원회 출범취지 및 추진경위 안내
- ▶ 해창만 간척지 현황 설명 및 현 실태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진행

소관 업무

· 해창만 간척지 실경작자 애로사항 해결 논의



주요의정활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감사개요

감사기간	2025. 6. 10.~ 6. 18.(9일간)
감사내용	2024년도 군정업무 전반
감사방법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감사대상	23개 실·단·과·소
감사자	11명(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

» 감사결과

구분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계	185건	36건	149건
시정사항	50	29	21
권고사항	109	3	106
감사요구	1	1	-
자료요구	25	3	22





의원연구단체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

» 소속의원 : 박경석(대표), 김준곤(간사), 김재열, 박규대, 고건, 김미경

» 연구목적

-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은 고흥군 인구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흥군의 인구 구조와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촌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며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기간 : 2025. 5. ~ 2025. 12.

» 연구내용

- 고흥군 인구 구조 현황 및 인구정책 추진 현황 분석
- 재촌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인구 확대 방안 마련
- 정착 유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및 환경 개선방안 강구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 인구 증진을 위한 고흥군 실정에 맞는 조례와 정책 발굴

» 연구활동 : 2025. 5. 15. 착수보고회 진행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일시 : 2025. 5. 15.(목) 장소 : 고흥군의회 소회의실



고흥군의회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 **소속의원** : 이재학(대표), 전명숙(간사), 한승욱, 김민열, 조영길

»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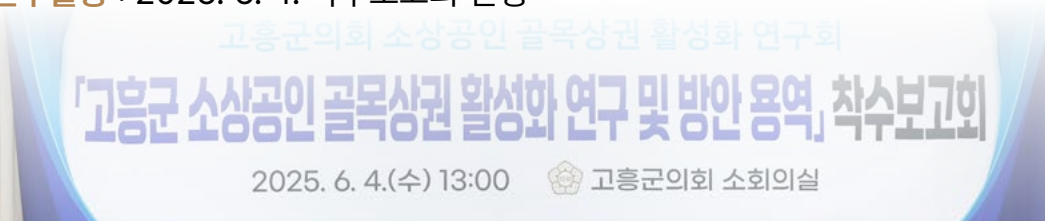
-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위축된 고흥군 지역 상권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기간** : 2025. 5. ~ 2025. 11.

» 연구내용

- 고흥군 내 주요 상권의 경제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고흥군 특성을 반영한 상권 특화 방안 마련
- 침체된 상권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상권 재생 프로젝트 제시
-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 상생협력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활동** : 2025. 6. 4. 착수보고회 진행



5분 자유발언

고흥군 체육시설 개선 촉구

(제335회 임시회) 박 규 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규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흥군 체육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흥군은 연중 온화한 기후를 갖추고 있어 야외 스포츠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여 국내외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큼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이러한 기후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7년 제66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유치한 것은 고흥군의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경기장 및 보조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대규모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라남도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와 고흥군이 전지훈련 최적지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7년 전라남도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7년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유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고흥군의 경기장들은 주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상경기장의 공인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흥군의 육상경기장은 3종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축구경기장의 추가 신설이 절실합니다. 현재 고흥군 내 축구경기장은 대회 개최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최소 2면 이상의 경기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충분한 경기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회 진행은 물론, 전지훈련 유치에도 한계가 따를 것입니다.

또한, 당구·탁구경기장의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조명의 밝기가 부족하고 관람석이 충분하지 않아 경기 운영과 관객들의 관람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조명을 개선하고, 관람객이 보다 편리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석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7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선수 및 방문객의 만족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지훈련 최적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고흥군은 전지훈련의 최적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남지역 전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규모는 1,580팀, 선수단 2만 8,024명입니다. 그 중 강진군의 경우 2025년 전지훈련에 296팀, 6,092명이 참가하여 전남의 22%를 차지하며 4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반면, 우리군은 43팀, 1,500명이 참가하여 15억 원의 경제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강진군이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받는 배경에는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강진 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2개소, 다목적실내체육관 2개소, 천연잔디구장 3개 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 종목별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강진군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지역상품권 지급,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최신식 웨이트 트레이닝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3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체육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흥군은 체육시설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이 시급합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신 훈련 장비와 최적의 운동 환경을 제공해야만 선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 확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시설, 식당, 물리치료 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 체류하는 팀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는 단순히 스포츠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자들의 방문이 늘어나면 숙박업, 외식업, 체육용품 산업 등 지역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머무르는 동안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고흥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지역 명소를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객 유입 효과가 발생하며, 지역 특산물 판매와 관광 서비스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개선과 전지훈련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2027년 제66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고흥군이 체육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개선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흥군이 전남의 체육 중심지로 자리 잡고, 체육 인프라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제336회 임시회) 전 명 숙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과 '도박중독'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안타깝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금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5년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몇 가지 통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13,36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 도박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학생들이 도박을 시작한 연령이 평균 12.9세라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도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4.3%로 약 17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6개월간 지속하여 중독에 빠진 학생은 19.1%로 약 3만 2천 명입니다. 고흥군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경찰 통계는 더 심각합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찰청이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9,917명이 검거되었는데 이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전체의 47.3%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도박이 더 이상 성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MBC 보도에 의하면 온라인 도박에 빠진 중학교 3학년이 도박을 끊지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고 다른 친구는 도박으로 약 1억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또 2023년 3월 2일 KBS는 온라인 불법도박에 빠져 사채로 돈을 빌렸다가 빚을 갚으라는 압박에 자살을 한 고등학교 1학년생 사례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귀금속을 털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중독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불안,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박빚으로 성매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청은 학교 재량에 맡기고 사실상 손을 떼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챌린지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도박중독은 우리 미래의 독버섯입니다. 교육청,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입니다. 무엇보다 실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흥군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도박 경험 유무, 중독 수준, 접근 경로, 도박 빚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재량에 맡기지 말고 군과 교육청이 함께 미디어리터러시와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포함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예방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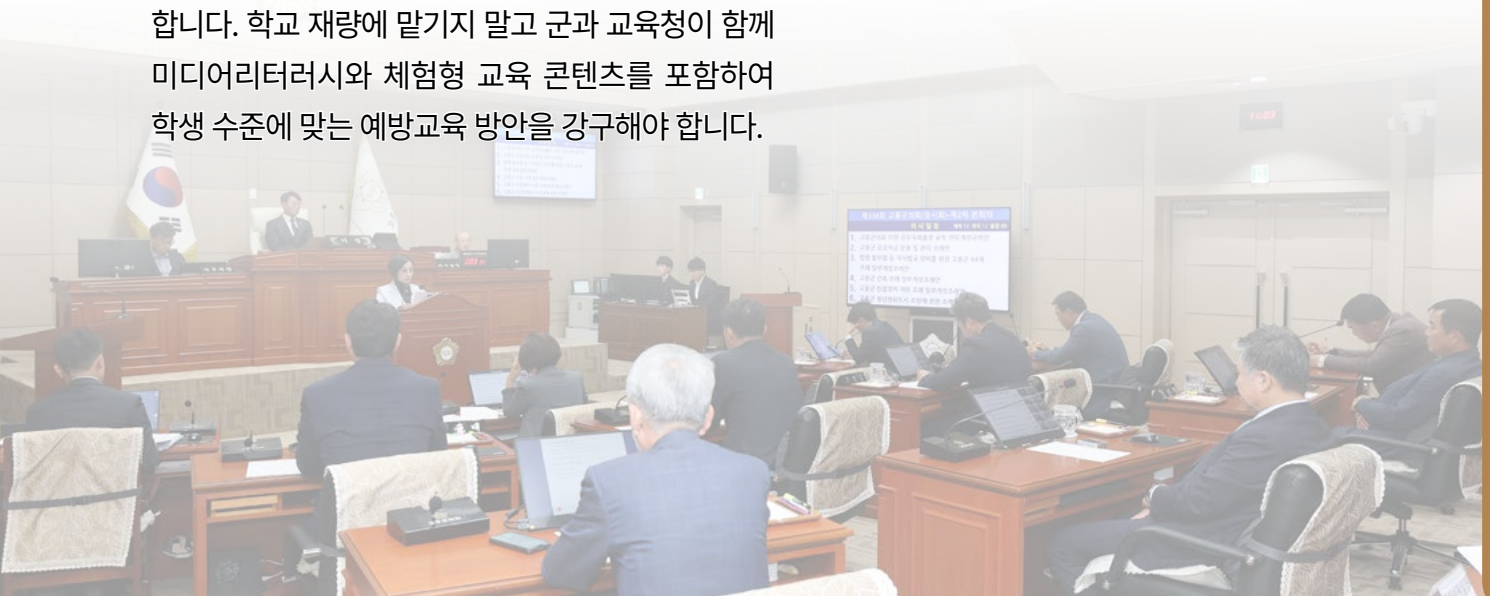
셋째, 상담, 치료, 재활 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중독 전문 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박을 놀이나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도박 사이트 접근이 너무 쉬워 폭발성이 강합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고흥군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전 명 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영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약 66만 명에 달하지만, 고령화 속도로 인해 2028년까지 11만 6천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흥군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이 무려 약 46%에 달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중대한 숙제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는 요양보호사 여러분은 말 그대로 우리 복지의 최전선의 영웅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이직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구조, 과중한 감정노동이라는 복합적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기에 이에 다음 몇 가지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임금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관별·사업자별로 급여 편차가 크고,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표준임금제'를 통해 요양보호사에게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처우개선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 하락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고흥군의회에서는 고흥군의 고령화 통계, 돌봄 수요 전망, 기존 서비스 실태, 그리고 표준임금제 도입과 예산 확보 방안, 인력 양성 계획, 제도적 보호

장치 등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돌봄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야, 우리 부모님의 노후도, 우리 자신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방소멸을 막고, 따뜻한 공동체를 지속시킬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자연재해 철저 대비 촉구 건의

(제337회 제1차 정례회) 박경석 의원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흥군의회 박경석 의원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재해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의 확대를 막는 것은 행정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월 30일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래 지속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상이변으로 우리 군은 농작물 고사, 가축 및 어패류 폐사, 생활·농업용수 부족 등 다방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5월에 파종한 두류, 깨 등 발작물의 경우 제때 비가 오지 않아 고사 단계는 아니지만 작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실효성, 급수대책, 농업용수 공급, 현장 대응 등에 대해 행정에서 자연재해 예방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더불어 마른장마까지 더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군민의 생명권, 건강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물부족과 관련하여 양수기, 스프링클러, 물차 등 급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계부서와 민간이 협력하여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상황에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때입니다.

비 소식이 간간이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필요한 때 급수를 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행정의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역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집행기관인 고흥군과 감시기관인 고흥군의회 존재 이유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대비 시스템을 확립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고흥군 공직자 여러분!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 군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고흥군은 폭염 및 가뭄 등 재해 상황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발 늦은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흥을 만들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폭염·가뭄 등 재해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행동요령 홍보를 통해 군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는 단기간의 기상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기후 위기 문제로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군민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고흥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 대응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뒷받침 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은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법률체계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반면, 이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와 인구기준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최근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여 양 기관의 공무원 직급 불균형이 발생해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역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행안부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등한 관계 설정에 앞장서서 한계를 긋는 행태이다.

따라서, 자체 조직구성에 자율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기구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과 예산 심의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권한을 뒷받침하며, 국회 자체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고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도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기관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 2. 26.

고흥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 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지난 30년 넘게 우리 전남도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극심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특히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공공의료의 위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민과 지역 사회는 오랫동안 의대 설립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 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발표하면서,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도민·대학·지역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학 통합이라는 양 대학의 역사적인 결단을 이끌어 내며,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을 정부에 추천했다.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불균형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남 동·서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 하고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우수한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의 혁신적인 선도모델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 국립대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국이 불안정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논의 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에는 전남권 통합의대 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최 권한대행의 ‘의대 정원 원점 검토’방침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고흥군 의회는 2백만 전남도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약속대로 지체 없이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진행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26.

고흥군의회

전라남도 의료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2025. 2. 26.(수)

고흥군의회

1차 군민, 별원의정! 고흥군의회 37

김미경

전명숙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가 경제와 어촌 지역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군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의 해양환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실·폐어구 문제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한 불필요한 어획 손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어구 실명제 시행과 함께 어구 관리 기록제 도입,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및 보증금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어구 실명제는 2006년부터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해 어구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아 어구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산업계에서는 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 방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어구 관리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해양수산부 또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어구 실명제는 QR코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어구의 소유자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어구의 위치를 추적하고 유실을 방지하며, 어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는 전자어구 실명제를 적극 도입하여 어구 관리를 체계화하고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된 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2025. 4. 22.

고흥군의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제이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의 필수 기반이다.

국회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3년 9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육아휴직자는 4만 2,4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1,249명으로 57% 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부모 모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이다.

정부 또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부모의 돌봄 책임을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용어를 ‘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용어 개편은 돌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적극적인 양육 참여의 시간으로 재정의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물가 시대에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보장받기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은 실제 양육환경과 부합하지 않다. 더불어 올해 2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 것은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단순한 연령 기준 확장에 그쳐 실제 양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생계 안정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실현하라!

하나,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고, 양육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단순 연령 기준 확대에 그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양육 필요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5. 6. 20.

고흥군의회

정부는 실질적 돌봄 보장을 위해 관련 지원책을 보완·강화하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1각 군민, 1각 의정! 고흥군의회 39

2025. 6. 20.(금)

고흥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헌법 이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와 모든 공공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해 온 담배 제조물의 실체를 직시하고, 해당 제조사들이 마땅히 져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물을 것을 선언한다.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10조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2일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2014년 제기된 본 소송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항소심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다시금 묻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공개 되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가 전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극히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이 표시되어왔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직접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즉시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라.

2025. 5. 15.

고흥군의회의



제1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녹동중학교 학생 참여, 2025. 5. 20.(화)

» 역할별 참여 학생

- 의 장 : 고준석
- 의 원 : 강한울, 장혜선, 김은찬, 선우송, 양채민, 박서윤, 현시윤, 김우영, 송하음, 이승현, 현지윤, 김성원, 정유민, 박시은
- 의회사무과장 : 강연우
- 전문위원 : 류다온, 이은찬
- 의사팀장 : 정유건

» 조례안 및 3분 자유발언 현황

구 분	안 건 명	제 안 자
의원발의 조례안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하음 의원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박서윤 의원
3분 자유발언	건강을 위해 편식을 줄이자	장혜선 의원
	차별을 차이로 바꾸는 사회를 만들자	김은찬 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박시은 의원
	학생들의 지나친 비속어 사용 문제	양채민 의원
	SNS 중독의 문제점과 예방	김성원 의원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정유민 의원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자	선우송 의원



활동사진



제2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고흥고등학교 학생 참여, 2025. 5. 28.(수)

» 역할별 참여 학생

- 의 장 : 김평강
- 의 원 : 신다래, 정은찬, 고은결, 조광진, 정인, 김은서, 김봄, 이효재, 김기은
- 의회사무과장 : 김진하
- 전문위원 : 김선종, 전예원
- 의사팀장 : 박규리

» 조례안 및 3분 자유발언 현황

구 분	안 건 명	제 안 자
의원발의 조례안	「학생 참여 예산제에 관한 조례안」	김은서 의원
	「음주·흡연 실질적인 예방 캠페인에 관한 조례안」	이효재 의원
3분 자유발언	학생생활규정 안내 부족 및 학생참여의 실효성	조광진 의원
	시험 및 수행평가 일정 조율 시 학생의견 반영 필요	정 인 의원
	하교 후 교실 잠금 시간의 통일 필요성	고은결 의원
	학생 사물함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	정은찬 의원



활동사진



의회 청렴 실천

청렴^한 세상

청렴 실천 결의

우리는 고흥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등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성희롱 등 4대 폭력과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의회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알선 및 청탁과 권한 남용, 이권 개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2025년 월 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청렴실천 결의 사진



2025. 2. 17.



2025. 3. 17.



2025. 4. 14.



2025. 5. 13.



2025. 6. 2.



2025. 1. 2. 고흥군의회 을사년 새해맞이 사무식



2025. 1. 16. 20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2025. 3. 21. 2025년 1분기 고흥군의회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



2025. 3. 31. 거금도 명품 비단 둘레길 조성사업 등 착공식



2025. 4. 8. 편백 치유의 숲 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



2025. 4. 22. 의정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2025. 4. 23. 고흥군의회-노원구의회 우호교류 협약 추진을 위한 간담회



2025. 4. 24. 고흥군 청년권익위원회 발대식



2025. 5. 2. 두원초등학교 학생 의회 견학



2025. 5. 2.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 현장 사전 점검



2025. 5. 13. 쑥섬 도선 2호 취항식



2025. 5. 20. 2025년 국보순회전 개막식



2025. 6. 16. 고흥군의회-노원구의회 자매결연 협약식



2025. 6. 19. 임진왜란 홍양수군 가치 재조명 학술대회



2025. 6. 20. 2025년 2분기 고흥군의회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



2025. 6. 27. 도양 복합문화센터 준공식

(25. 2. 11.)

고흥군의의회, 현장에 답이 있다... 군정 주요 사업 현장 방문



- 첫 임시회 기간(2. 17. ~ 2. 26.) 중 정책제안 및 실질적인 군민 지원 방안 모색
- 주민생활과 밀접한 6개소 사업 현장 방문
-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 강화 지속해 나갈터...

고흥군의의회(의장 류제동)는 오는 2월 17일 개최하는 제333회 임시회를 앞두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첫 임시회(25. 2. 17. ~ 2. 26.) 기간 중 집행부의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실질적인 군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군의의회가 방문한 주요 사업장은 ▲도양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장 ▲풍남향 마른김 가공 공장 배출수 공동방류시설 설치 사업장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장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건립 사업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장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장 등 총 6개 사업장이다.

현장을 방문한 군의원들은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류제동 군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5. 3. 21.)

고흥군의회,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소통·협력 간담회 가져



-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 밀착형 상생 협력 방안 논의
- 군의회, 소상공인 경영 안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할 터...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3월 2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현안 애로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소통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청취 및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고흥군 소상공인연합회 장경자 회장 및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점유 영업에 대한 신속한 조치 ▲전남 공공배달 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모색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고흥군 소상공인연합회 장경자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군의회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군의회 한승욱 산업건설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의회, 고흥산 황금개체굴 유럽시장 확대 진출 “머리 맞대”



- 개체굴 생산업체, 경기 침체와 높은 관세 어려움 호소
- 군의회, 어가 소득증대 맞춤형 지원 정책 방안 모색할 터...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3월 26일 동일면 소재 친환경 개체굴 생산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고흥산 황금개체굴을 출하 중인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체굴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산 황금개체굴은 2023년 9월 상표를 출원해 수출 주도형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고,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 제22호로 등록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체굴의 수확 과정 및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친환경 양식 기술 및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개체굴 생산업체 대표는 “현재 경기 침체와 높은 관세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 출하 생산시설 기반 확충과 판로 개척 등을 위한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고흥군은 2024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개체굴 생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하는 데 이어, 유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고흥군의 개체굴 양식은 17여가가 참여해 연간 약 17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고, 국내 유통은 8톤, 4천만원에 이르고, 수출은 162톤, 약 6억 4천만원의 어가 소득을 얻고 있다.

황금개체굴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굴의 식감 또한 뛰어나 kg당 4,000~6,000원으로 일반 굴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연중 생산이 가능한 3배체 개체굴 우량 품종인 고흥산 황금개체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특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5. 4. 25.)

고흥군의의회, 지방의회 발전 본격 교류 노원구의의회 방문



- 도농 간 상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색

고흥군의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4월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의회(의장 손영준)를 방문해 양 의회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도농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흥군의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11명이 함께했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강화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행정역량 제고 및 의정활동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양 의회는 우호 협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대한 상호 의사를 공식적으로 교환했다.

고흥군의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도농 간 문화와 자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고흥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특산품이 도심 지역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손영준 노원구의의회 의장은 “노원구와 고흥군은 2019년 4월 23일에 상호결연을 체결 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긴밀한 관계”라며, “이번 교류가 지방의회 간 협력이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상생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교류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의회 간 협력 추진은 양 지역 간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의회 간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다.

양 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오는 6월 중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목표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의정 정보 공유, 지역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의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용역 착수보고회



- 고흥군의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 평가 본격화
-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 기대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14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 의원,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영길 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수행하며, 4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총 85건의 조례이며, 주요 과업은 ▲조례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실효성 평가 ▲개별 조례 개선 및 정비 방안 마련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 수행 전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입법평가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선안을 소관 상임위와 집행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입법평가는 고흥군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 6. 17.)

고흥군의의회 - 노원구의의회, 지방의회 협력의 지평을 열다



- 자매결연 협약 체결,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의 교량

지난 6월 16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전라남도 고흥군의의회(의장 류제동)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의회(의장 손영준)가 지방의회 간 교류와 도농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제9대 후반기 고흥군의의회 의장단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시책이기도 하다.

이날 협약식을 갖기까지 고흥군의의회는 협약 체결에 앞서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정한 후, 지난 2월 전체 의원에게 교류 희망 의회에 대한 의견을 받고, 3월에 의원협의회를 거쳐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있는 협력 모델로 노원구의의회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4월에는 양 의회 실무자 간 교류 의향을 확인한 뒤 고흥군의의회가 먼저 노원구의의회를 방문하여 공식 자매결연 간담회를 가졌으며, 상호 간의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서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 및 우수사례 교류 ▲지역 문화 및 특산물 소개를 통한 지역 홍보 확대 등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지속 발전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류제동 고흥군의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자매결연은 단순한 상징적 만남이 아닌, 정책 교류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손영준 노원구의의회 의장은 “노원구와 고흥군의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여 양 의회가 동반성장의 모델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화답하고 협약식을 마쳤다.

한편, 고흥군과 노원구는 2019년 지자체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은 양 지역 간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5. 6. 27.)

고흥군의회, 지역 학부모회연합회와 소통간담회 가져



- 관내 통학로 안전 및 등·하교 환경 개선 방안 논의
- 군의회, 학생 안전 최우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적극 추진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6월 26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등·하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흥군 관내 일부 학교의 통학로 및 주변 환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고흥학부모회연합회 이미경 회장 및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회연합회는 ▲통학로 인도·차도 구분 및 일방통행 지정 ▲교통 도우미 배치 및 교통 안전 시설 확충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등·하교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고흥군 학부모회연합회 이미경 회장은 “관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군의회와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제동 의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부모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에서 나는 여덟가지 특산물 고흥 8품 (品)



1품 유자



2품 석류



3품 김



4품 미역



5품 다시마



7품 마늘



8품 유자골한우



6품 굴

고흥 대표 음식 고흥 9미 (味)



1미 장어탕/쿠이



2미 서대회무침/ 조림



3미 유자술(酒)



4미 매생이국



5미 삼치회/쿠이



6미 전어회/쿠이



7미 모듬생선 숯불쿠이



8미 바지락회무침/젓갯



9미 한우쿠이

자연이 그려넣은 명작 고흥 10경 (景)



1경 팔영산 자연휴양림과
편백치유의 숲



2경 역사의 섬 소록도



3경 사계절 꽃피는 쑥섬



4경 예술의 섬 연흥도



5경 금산 해안경관과
거금생태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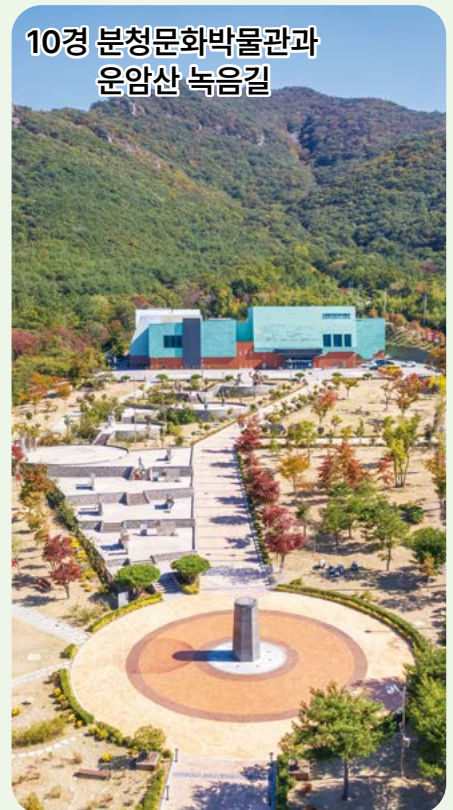
6경 천등산 봉수대



7경 나로우주센터와 편백숲



10경 분청문화박물관과
운암산 녹음길



8경 남열 해안경관과
해수욕장



9경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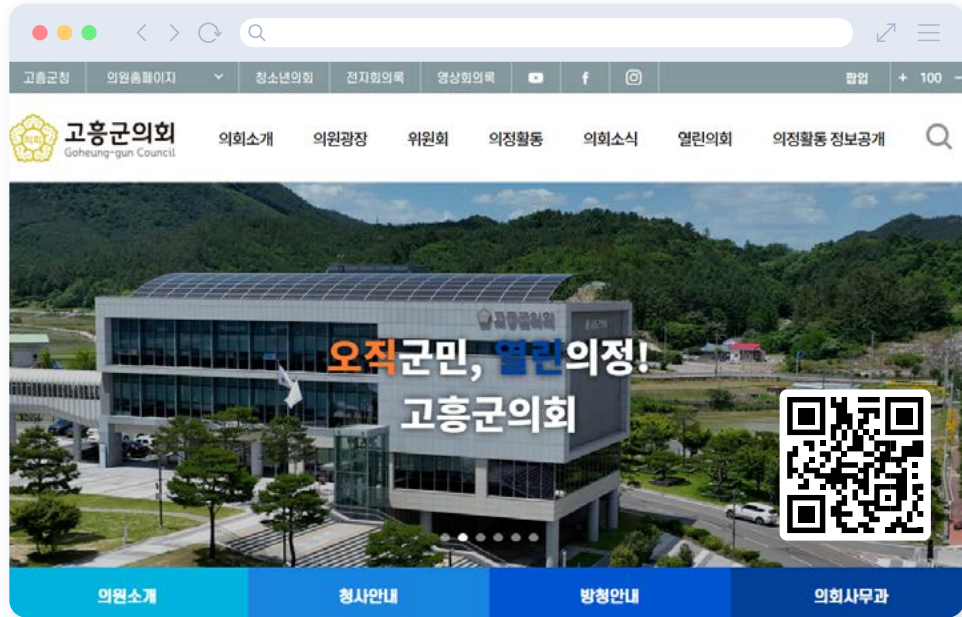


2025년도 회의(정례회, 임시회)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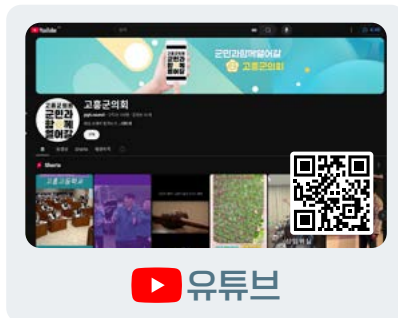
횟수	기간	회기 일수	주요안건	비고
계		111		
제333회 (임시회)	25. 2. 17.(월) ~ 2. 26.(수)	10	·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및 일반의안	· 개회식 · 설날 - 1월 29일
제334회 (임시회)	25. 3. 18.(화) ~ 3. 20.(목)	3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335회 (임시회)	25. 4. 14.(월) ~ 4. 22.(화)	9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개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및 일반의안	· 재선거 - 4월 2일
제336회 (임시회)	25. 5. 13.(화) ~ 5. 15.(목)	3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337회 (제1차정례회)	25. 6. 2.(월) ~ 6. 20.(금)	19	· 2024 회계연도 결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조례안 및 일반의안	· 개회식
제338회 (임시회)	25. 7. 16.(수) ~ 7. 18.(금)	3	·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339회 (임시회)	25. 8. 13.(수)	1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일반의안	
제340회 (임시회)	25. 9. 8.(월) ~ 9. 16.(화)	9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341회 (임시회)	25. 10. 14.(화) ~ 10. 27.(월)	14	·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 조례안 및 일반의안	· 추석 - 10월 6일
제342회 (제2차정례회)	25. 11. 10.(월) ~ 12. 19.(금)	40	·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군정질문 및 답변 ·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및 일반의안	· 개회식

오직 군민, 열린 의정

고흥군의회의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홈페이지
council.goheung.go.kr



www.youtube.com/
@gh.council



www.facebook.com/
gohcouncil



www.instagram.com/
gh.council

의회 방청 안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전신청을 통해
고흥군의회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안내 : 의회사무과 061)830-5032

의회 견학 안내

개인 또는 단체 방문으로 평일 오전9시 ~오후5시까지
고흥군의회 견학이 가능합니다.

견학안내 : 의회사무과 061)830-6066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고흥군의의회



고흥군의의회
Goheung-gun Council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TEL. 061) 830-6158 FAX. 061) 830-5595
홈페이지 <https://council.goheung.go.kr>